

오페라 그람시의 시놉시스

I. 감옥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는 검사의 위협과 자신의 사상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상하며, 자신의 지성을 저항의 도구로 삼겠다고 다짐한다. 한 의사가 등장해 겉으로는 동정을 표하지만, 사실 파시스트로서 그람시의 죽음을 바란다.

II. 길라르차

그람시는 형제 제나로와의 대화 속에서 어린 시절의 사르데냐 섬에서의 생활을 떠올린다. 그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었던 아버지와 현재 가족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한다.

III. 멀리 있는 사람 1

그람시는 모스크바에 있는 아내 줄리아를 꿈꾼다. 그녀의 부재와 침묵은 그를 괴롭힌다. 내적 독백에서 그는 그녀의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IV. 가까이 있는 사람 1

줄리아의 여동생 타티아나가 그람시를 방문한다. 그녀는 줄리아의 소식을 전하며 그를 위로하려 한다. 둘은 애뜻한 이중창 속에서 위로와 말하지 못한 애정을 엮어간다.

V. 어머니

그람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린 시절 그녀의 지원을 회상한다. 상상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선행,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가치를 전달할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VI. 무솔리니

이탈리아 의회에서 그람시는 무솔리니와 대면하며, 파시즘의 폭력과 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무솔리니는 그람시를 조종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 장면은 두 인물의 성격과 이념의 대조를 보여주는 강렬한 이중창으로 끝난다.

VII. 모스크바

그람시는 스탈린과 톨리아티와 함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당 노선을 논의한다. 그람시의 전략적 연합 제안은 스탈린에게 조롱당하고, 톨리아티는 그람시에게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VIII. 삶은 쓰는 것이다 1

그람시는 감옥에서 글을 쓸 재료를 받는다. 그는 글쓰기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실내 합창단은 지식인, 문화, 민중 교육에 대한 그의 사상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IX. 불구자

그람시는 어린 시절과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을 회상한다. 어머니와 형제 제나로는 이를 각각 위로와 조롱으로 받아들인다.

X. 멀리 있는 사람 2

줄리아는 그람시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 사이의 단절로 인한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을 표현한다. 그녀의 말은 두 사람의 삶의 여건 차이를 보여준다.

XI. 가까이 있는 사람 2

타티아나는 그람시에게 희망을 전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업이 미완성된 상태와 고립에 괴로워한다. 그녀의 관심은 그에게 짧은 위로를 준다.

XII. 삶은 쓰는 것이다 2

실내 합창단은 그람시의 감옥 수첩에서 발췌한 생각을 표현한다. 그는 파시스트 정부의 문화적 선전을 비판하고 민중을 속이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XIII. 형제

그람시와 제나로는 떨어져 고립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제나로는 그람시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숨겨 충격을 피하려 한다. 그람시는 충성심과 당 내 자신의 역할을 성찰한다.

XIV. 죽음

그람시는 병으로 사망한다. 의사는 냉정하게 그의 상태를 묘사한다. 죽기 직전, 그는 석방 소식을 듣는다.

XV. 전설

상징적인 마지막 장면에서 그람시의 장례식이 묘사된다. 한 목격자는 그람시의 유산, 즉 그의 정직함과 비판적 학문을 회고한다. 이 장면은 개인성과 집단적 기억의 대조를 그린다.